

국제유가 변화 및 금리 불확실성에 지수 상승세 제동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유가·금리 부담에 3 대지수 하락, 실적발표 개별기업 변동성

- 미 증시는 DOW -0.85%, S&P500 -0.18%, NASDAQ -0.06% 하락. 에너지 강세, 소재, 산업재, 유틸리티 약세
-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국제유가 상승 흐름 보이며 국제금리 상승, 주가지수 최근 상승 랠리 멈추고 숨고르기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0.3%, 다만 샌디스크(-6.8%), 애플(-19.7%), 웨스턴디지탈(-13.0%) 등 실적발표 후 투자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차익실현 양상

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치에 유가변동성 ↑, 트럼프 폴리실리콘 관세 행정명령 서명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77.8(+3.4%), Brent \$82.7(+4.1%). 이란이 미·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 법안 추진 보도에 상방 압력. 미국 측은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한 국가에 의해 통제할 수 없다며 반박. 이란은 오만과 합의를 통해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무상 개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짐
- 한편,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232 조에 기반해 반도체 핵심원료 중 하나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품에 15% 관세 부과 및 최저수입가격 1kg 당 \$21(폴리실리콘 잉곳·웨이퍼는 1kg 당 \$100) 행정명령 서명. 중국 등 저가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

고용지표 엇갈리는 가운데 9 월 인상론 대두, 국제금리 상승

- 국제금리 상승 10Y 4.674%(+5.4bp), 2Y 4.252%(+6.5bp). FT 보도를 통해 향후 몇주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다면 워시 의장이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해지며 2년물 중심 상승세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9.9만건, 전주 대비 증가했으나 컨센 하회, 3주연속 20만건 하회
- 7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미 기업 감원계획 3.3만명, YoY -42%, MoM -27%로 2년래 최저 수준. 감원계획은 주로 AI 재편에 따른 기술업종(1-7월 누적치 YoY +67%) 주도. 다만, 채용도 YoY +25% 증가로 AI에 의한 노동시장 해체 우려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SPCX	스페이스X	+6.1%	IPO 이후 주가 최저치 기록했던 가운데, 초기투자자·임직원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도 주가 상승. 공급 증가에 따른 주가 약세 우려에도 불구하고, 매물 출회 제한적. 당일 보호예수 해제로 유통 주식 비율은 5% 미만에서 12% 이상으로 확대됨. 한편 테슬라(-0.6%)와 합작투자회사를 통해 텍사스 테라랩 건설에 초기 \$16.8B를 투자. 세금 감면 계약의 기한 요건을 충족 후, 테라랩 건설 부지 확정 발표
GOOG	알파벳	-1.0%	최대 \$25B 규모의 달러표시 회사채 발행 추진 소식 보도. 이번 발행에 약 \$115B 규모의 매수 주문이 집계되었고, 이는 아마존, 스페이스X를 포함한 최근 AI 채권 발행에서 나타난 수요를 상회하는 수준. 투자 수요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발행프리미엄을 제공함에 기인
MRNA	모더나	-4.3%	미 FDA가 동사의 첫 mRNA 기반 독감백신 'mFLUSIVA(50세 이상 성인 대상)'를 승인. 이전 FDA의 심사 거부 등 기나긴 공방 끝에 얻어낸 4번째 mRNA 제품 승인. 승인 소식에 주가는 급등세 보이기도 했으나, 밸류에이션 부담 및 향후 시장 채택 우려 제기되며 상승분을 반납
ABNB	에어비앤비	-0.6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외 주가 +10대 상승중. 2분기 매출 및 EPS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하며 주가 강세. 견조한 여행 수요와 일평균 객실 단가(ADR) 상승에 힘입어 총 예약액 및 예약 숙박 수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.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핵심 시장에서의 수요 강세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 성장률 및 마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
DDOG	데이터독	-19.0%	실적발표. 2분기 매출이 +36%YoY 급증했고, 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군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. 다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약 +1.8%QoQ 성장에 그치면서, AI 수혜를 반영해 가파른 고성장을 프라이싱하던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주가 급락
WBD	워너브라더스	+1.7%	실적발표. 2분기 매출은 11%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 하회했으나, 스트리밍 부문 매출의 10% 증가에 힘입어 EPS는 예상치를 상회